1. 영토

1-7. 북한 지역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 협정으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404㎢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3년 현재 약 2,450만 명으로, 북한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499.1명/㎢의 40% 수준인 199.3명/㎢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에 이르며, 신의주-단둥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 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도, 9시, 89군, 810읍·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시·군-읍·면-리(동)의 4 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직할시)시(구역)·군 -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 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의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14년 현재 북한은 1직할시(평양직할시), 2특별시(나선특별시, 남 포특별시), 9개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의 지형은 백두 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 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 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 지대를 벗어나면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곡류 하천의 특성을 보이지만, 두만강, 남 대천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직류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평야인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은 주로 황해로 흐르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대에 발달해 있다.

 북한 지역은 지질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 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의 경우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부존 광 물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40 여 종에 이른다.

 북한 지역의 기후는 온대 지역에 속하나,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 서풍의 영향으로 매우 춥지만, 여름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특성을 보인다. 북한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600~1,500㎜에 이르며, 이 가운데 53~63%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다. 또한,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정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른 ‘다락밭(산비탈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밭) 개간’,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 훼손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 연료 등을 얻기 위해 산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황폐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림> 북한 행정 구역(1946 → 2013)

<그림> 북한 지역 개괄

<그림> 북한 행정 구역 현황

**북한의 인구와 도시**

<사진> 북한의 인구와 도시(평양, 남포, 함흥, 원산)

<그림> 북한의 인구 밀도

 광복 이후 1946년 북한 지역의 전체 인구는 약 926 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감하여 1953년에는 약 849만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58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1980년대 후반에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 중앙통계국의 공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는 1992년에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 매년 꾸준히 약 1% 내외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4년에 전체 인구가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주로 고도가 낮고 평야 지대인 남서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혜산시, 청진시, 함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지역의 5세 이상 이주 인구는 총 234,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 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도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의 이주 인구 가 가장 많다. 특히 평양직할시의 경우 북한 지역 전체 전 입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전출 인구는 10.2%), 전체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과 많은 수의 전입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북한 지역 중에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만이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고, 나머지 지역 모두 높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함경남도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의 약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평양직할시의 경우 전체 전입 인구의 30.2%가 평안남도 출신이며, 뒤를 이어 황해북도가 13.6%, 평안북도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체로 전입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 면 평양의 전출 인구의 경우, 평안남도가 40.2%를 차지 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들로의 전출은 전반적으로 고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양의 전입 및 전출 인구의 구성에서 또 다른 독특한 양상은 타 지역보다 양강도와 자강도로의 인구 이동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양강도와 자강도로의 전 출 인구 비율은 0.01%와 0.03%이며, 양강도와 자강도에 서 평양으로의 전입 인구는 0.03%와 0.0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강도와 자강도의 인구가 적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강원도의 경우 평양으로의 전출 인구는 8.5%, 전입 인구는 14.3% 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양강도와 자강도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도 연관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북한의 도시화율

<그림> 북한의 인구 이동

<그림> 평양 인구 유입

<그림> 평양 인구 유출

<그래프> 북한의 연도별 인구 추이

 2008년 현재 북한 지역 총인구의 64.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의 경우 도시 전체 인구의 86.7%가 시가화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 서 도시화가 가장 진행된 지역이다. 뒤를 이어 나진·선봉 경제 특구, 청진시 등의 주요 도시가 있는 함경북도는 전 체 인구의 70.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남포특별시가 소재한 평안남도는 64.9%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도들은 모두 평균 이하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은 도시화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 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우 더딘 상태이다.

 2008년 현재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로 전체 인구는 325만 5천 명이며, 그 뒤를 함경남도 함흥(76만 8 천 명)과 함경북도 청진(66만 7천 명)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평양뿐이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2개, 10만 명 이상인 도시는 18개에 불과 하다.

 북한 지역의 도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에는 평양-청진-원산-함흥의 순서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함흥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평양-함흥-청진-원산의 순서였으나, 1982년에는 청진이 다시 제2위의 도시로 올라서서 평양-청진-함흥-원산의 순서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로 다시 함흥시가 추월하였고, 남포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2008년 현재 평양-함흥-청진남포의 도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의 주요한 경향은 서부의 평양 ~ 남포와 동부의 함흥~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북부 지역의 혜산시, 강계 시, 신의주시 등과 중부 지역의 평성시, 개천시, 순천시, 덕천시 등이 80% 이상의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들이다.

**북한의 경제와 남북 협력**

<그림>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그림> 북한의 산업별 종사자 인구 분포

<그림> 북한의 직업별 인구 분포

<그래프>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농림•어업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광업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제조업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경공업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중화학 공업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건설업 성장률 추이

<그래프> 북한의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 주도의 계획 경제라는 특성과 함께 북한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조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농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한계는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 괴와 함께 심각하게 드러났고,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는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이다.

 2008년 현재 산업별 종사 인구를 분석하면, 북한의 경제 구조는 1차 산업 36.1%, 2차 산업 34.3%, 3차 산업 29.6%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황해남·북도의 경우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58.1%와 45.6%로 가장 높다.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44.3%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이 지역에 북한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평남 남부 탄전, 평남 북부 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 발달에서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딘 편이어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소위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북한은 대외 경제 관계를 보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필수적인 원자재 등을 최소한으로 수입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주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한계를 느낀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 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다. 뒤이어 2002년 9월 신의주 행정 특구, 10월 개성 공업 지구, 11월 금강산 관리 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핵 실험 등으로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이 지역과 함께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리 고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함께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표로 13개의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북한은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그림> 남북 교역 및 경협 연혁

<그래프> 남북 교역액 추이(1989 - 2013)

<그래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

<그래프>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수

<사진> 개성 공단 전경

<사진> 경의선 도로 출입 시설

<사진> 동해선 도로 출입 시설

<사진> 도라산 역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70년대 들어 양국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11월 8일 김영삼 정부는 제1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의 제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북 경협은 상품 교역 등의 일반 교역에서 시작하여, 위탁 가공교역과 직접 투자의 순으로 발전하였다. 북에서 남으로 반입되는 경우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 등의 사업이 안정화된 2010 년부터는 경제 협력(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기타 경공업 협력)에서의 반입액이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남에서 북으로의 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남북 경협의 초기 비상업적 거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경제 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한 남북 경협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 산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등을 들 수 있 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되었고, 북측 에서는 2002년 11월 13일「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 일대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2008 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남과 북은 2000년 7월과 8월에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와 도로(문 산-개성)의 연결을 합의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18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3년 초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하여 개성 공단 개발을 위한 임시 통행이 시작되었고, 동해선 도로 역시 2003년 2월 11일 임시 도로 개통식 이후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해 이용되었다. 2007년 5월에는 경의선 문산역-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에 대한 열차를 시범 운행하였으며, 그해 12월부터는 경의선 문산봉동 간의 화물 열차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다. 개성 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합의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4년 12 월 15일 입주 기업에서 첫 제품을 출하하였다. 개성 공단 사업은 북측의 12·1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입주 기업 123곳, 북측 노동자 5만 2천 명에 달하며, 누적 생산액 23억 685만 달러, 교역액 94억 5천 만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3년에 서 2007년까지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후에는 급격히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